광주세계수영 기념 수영진흥센터 건립

시, 타당성 조사 용역 마쳐…470억 들여 국제 규격 수영장·훈련시설 등 조성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념유산'(Legacy) 사업으로 광주에 국제 규격의 수영장과 훈련시설을 갖춘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6일 광주시는 "대규모 수영 인프라 시설인 광주수영진흥센터를 건립해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하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도 유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마쳤다. 이 용역은 올해 7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에 맞춰 추진 중인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역에 담긴 사업계획에 따르면 센터 부지는 연면적 1만9634㎡,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다. 1층에는 국제 규격의 경영·연습·청소년·유아·다이빙 풀과 함께 다이빙 훈련장, 관람석이 들어선다. 2층에는 관람석과 생활체육 시설을 비롯해 매점, 카페, 푸드코트 등 수익시설이 마련된다. 3층은 선수·지도자를 위한 숙소로 이용되고 재활치료실, 의료실, 스포츠과학실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이와는 별도로 수영 관련 홍보물과 기념물을 전시할 수 있는 스포츠 기념관 건립도 추진한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470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건비는 연간 9억2000만원, 운영비는 1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수영대회와 생활체육 대회를 유치하면 연간 선수, 임원, 학부형 등 68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지훈련으로 연간 4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됐다.

입장료, 수익시설 등 수익은 연간 24억원으로 예측됐으며 생산유발 1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340억원, 고용유발 487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고, 문화관광체육부와 사업비 마련,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영진흥센터 사업은 2013년 세계수영대회 유치 이후 수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사업비 조달 어려움과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논란 등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국내에는 서울올림픽 기념관, 한일월드컵기념관, 대구스포츠기념과, 세계군인체육대회기념관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종합전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오늘 공개

이달 중 정부안 확정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가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가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게 이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양승태 '입' 열까

11일 출석…헌정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조사

김앤장 변호사 만나 강제징용 소송 논의 정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그가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한 달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다.

'임종헌→박병대·고영한→양승태'로 이어지는 양승태 법원행정처 보고·지시 체계 가운데 임 전 차장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선 부당한 업무를 시키지 않았지만 '과잉 충성'을 한 것이라며 후배 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그 지시를 받아 실무자에게 전달한 박·고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 모두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이 된다.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 같은 구조로 얽혀 있는 셈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 등이 상급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숙박시설 보일러 안전점검 4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과 해양도시가스 직원들이 두암동의 한 관광숙박시설에서 가스계량기와 보일러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북구는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등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날 도시민박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가스 누설 여부와 층별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아베, 韓징용배상 압류신청 "매우 유감"

"국제법 비춰 있을 수 없어…구체적 조치 검토 지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선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외국의 사법부 판결을 또다시 비판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작년 12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나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면담조차 거부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에서 최근 우리 해군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논란과 관련해선 "레이더 조사(照射)에 대해선 방위성이 공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만 거론했다. /연합뉴스

단독 섬
바로삽니다.010-6834-7400
※전남,북지역/지분환영※

★투자자 모집★
· 1억원 이상
· 특수물건만 취급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전망 좋은
오피스텔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73평, 사무실 전용, 코너
■ 20층중 20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5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
■ 매매 – 4억(일시불 조정가)
■ 임대보장
문의. 010-6834-7400

부동산 매매
●남악 신도시●
지 번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308번지
면 적 12,510.5㎡ (3,785평)
매매가 230억원
용 도 일반상업지역, 대로변접 사거리코너
권장업종 예식장, 관광호텔, 아울렛, 오피스텔, 창고형 마트 등
전남도청 앞 남악신도시의 최고 핵심상권!!
※본물건은 전속중개물건임
(주)조은날부동산
☎010-3111-508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음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화순읍 이십곡리 대지 860㎡ 광주에서 10분거리 2억6천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별장형주택 남평읍 수원리 대지 403㎡ 주택 143㎡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음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핑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조정가능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정읍시 신태인읍 1213㎡ 감정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4억3천에 매도함
• 제주시 애월읍 땅 10023㎡ 공사중단건물 신탁 51억 유치권 30억·81억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룸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잘됨 3억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